



스웨덴

스웨덴 하면 먼저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연상된다. 한반도의 두 배나 되는 넓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주민 수는 불과 8백50만 명 수준이다.

국토의 과반수가 울창한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각 변동으로 생긴 자연 호수가 무려 9만6천 개나 있는 목가적인 나라이다.

스웨덴은 유럽 전체에서도 네 번째로 큰 나라이며, 북유럽에서 으뜸가는 장수국이다. 개인당 GNP도 무척 높아 세계 선진국 수준이다. 스웨덴의 수도는 1521년부터 정해진 스

톡홀름이다.

흔히 스톡홀름을 가리켜 '섬과 다리로 연결된 물의 도시'라고 부른다. 바다 위에 점점이 놓인 섬을 수많은 다리로 연결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스톡홀름의 구 시가지에 들어서면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시대로 되돌아 간 느낌이 든다. 중세시대에 세워진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건물 사이로 꼬부꼬불한 길을 걷다 보면 고풍스런 성당이나 왕궁, 이름난 레스토랑이나 상점가 등을 만난다.

스칸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야외 박물관이다. 스웨덴의 전통적인 집, 교회, 풍차, 농가 등을 스칸센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스웨덴의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선 노인들이 많이 모여 담소를 하거나 호젓이 앉아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시행되는 관계로 노인이 되도 사회적으로 홀대받는 일은 없

▼ 스웨덴의 깨끗한 공기와 물은 인간의 장수에 큰 도움을 준다.



다, 하지만 자녀들이 다 떠나 버리고 홀로 사는 노인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남녀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르는 스웨덴 사람들의 장수비결은 적절한 식사와 운동이다. 스웨덴 현지에서 만나 본 90세가 넘는 노인들은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과음, 과식을 하지 않으며 생야채와 과일을 즐겨 먹는다고 했다. 또한 맑은 물과 공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욕심없이 살아온 것이 장수의 비결일 것이라고 말한다.

스웨덴 같이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슬하게 만나는 스트레스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장수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잘 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견학을 정도이다. 스웨덴에서는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최소한 1년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병이 난 근로자는 휴직 중이라도 월급의 75%를 받으며 병원 치료를 받는다. 해고된 근로자는 3백일 동안 과거 받던 월급의 75%를 받는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로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세금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때 낸 세금이 자



▲ 양지바른 곳에서 쉬고 있는 스웨덴의 노인들. 남녀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른다.

신이 병들거나 노후에 다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으로 되돌아 올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세금을 낸 사람일수록 사회보장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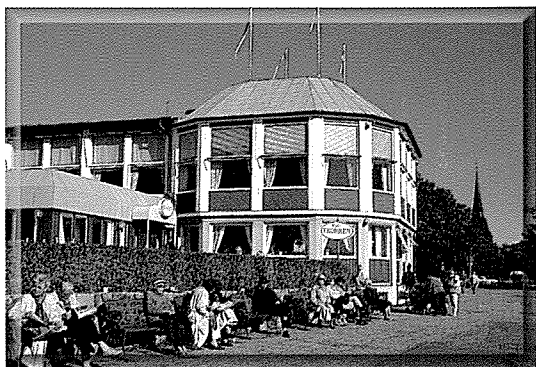
해마다 스웨덴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때는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할 때이다. 스웨덴 사람였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노벨상은 1901년부터 물리, 화학, 의학, 문학, 평화, 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되고 있다.

숲과 호수로 이루어진 스웨덴의 드넓은 국토에선 사람들 간의 접촉이 과거에는 할

발하지 않았다. 자원 개발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별로 발전한 춤과 노래, 목공예나 수공예 기술 등은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다. 축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해마다 성대하게 개최된다. 특히 하지 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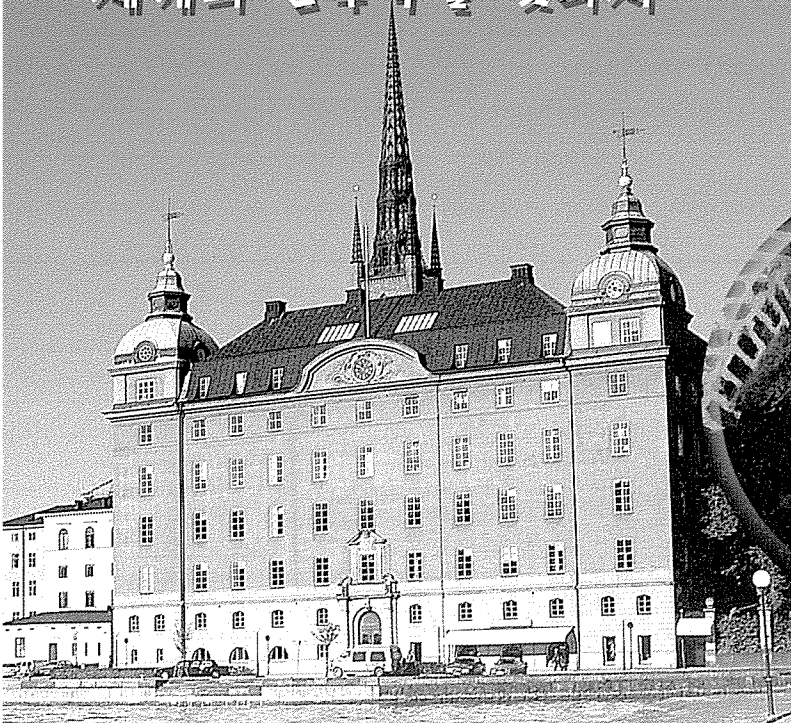
춥고 어두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여름이 오면 예외없이 밤에도 해가 뜨는 백야현상이 일어난다. 하루 24시간이 환한 대낮이어서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스웨덴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북극권에 위치하고 있어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백야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기는 6월이다. 이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하지 축제가 열린다. 스웨덴의 북부 달라르나 지방에서는 꽃과 나뭇가지로 장식된 높은 기둥인 오



▲ 스칸센에는 편안한 휴식을 위해 찾아 오는 노인들이 많다.

세계의 장수국을 찾아서



▲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의 시청사. 유채같은 건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 단란하게 식사를 하는 부부. 스웨덴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이 있다.

월주(maypole)를 마을 광장에 세워 놓고 주민들은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축제를 다같이 즐긴다.

저녁 무렵이 되면 사람들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노래를 부르며 집집마다 방문하

여 자작나무 가지를 선물하고는 달걀 등의 선물을 받는다. 처녀들은 7가지 들꽃을 꺾어 베개 밑에 넣고 잠자리에 든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는 속설 때문이다.

렉산드의 아름다운 실리안 호수에서는 옛 바이킹 시대를 연상시키는 배들이 뜬다. 배에는 민속 고유의 의상을 입은 사람과 악사들이 타고 있다. 이들은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오월주를 세우고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손에 손을 잡고 춤추고 노래한다.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백야 현상 아래에서 정겨운 축제가 열리는 것이다. [2]



▲ 스웨덴 사람들의 장수 요인으로 꼽히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류

글·사진 / 허 용 선 (여행 칼럼니스트)